

시설보호 아동의 기질 및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관계*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석사문지윤
부교수 임정하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Master : Chiyun Moon

Associate Professor : Jungha L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social support and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emotion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198 children aged from 10 to 13 years old. They were recruited from 20 childcare facilitie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 alphas, factor analyses, frequencies, percentiles, *t*-tes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n average, girls showed higher emotionality in temperament compared to boys. Girls reported greater support of school teacher than boys. Boys experienced significantly higher positive emotions than girls, while girl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negative emotions than boys. 2) Positive emotions were influenced by the support of the institutionalized family as well as school teachers. Negative emotions were influenced by the support of the institutionalized family.

주제어(Key Words) : 시설보호 아동(institutionalized children), 기질(temperament),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긍정적·부정적 정서(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Corresponding Author : Jungha Lim,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Tel: +82-2-3290-2327 Fax: +82-2-927-7934 E-mail: jhlim@korea.ac.kr

* 본 논문은 2010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I. 서론

가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성격발달의 기초가 되는 장으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구성원과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경제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늘어나 시설이나 아동임시 보호소에 맡겨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강경미, 2008).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아동복지시설현황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36.5%가 초등학생으로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의 입소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아동기는 발달상 과도기적 단계로 발달과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문제가 표출되기도 한다(이은경, 2006). 시설보호 아동은 이러한 과도기적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주는 물리적, 정서적 위협 요인에도 노출되므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중첩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시기의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 다음 발달단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설보호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서는 개인의 심리, 사회,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인 것이다(Lazarus, 1991).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전적 요인 중 하나인 기질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인차로서 환경에 반응하는 개인의 행동양식(Thomas & Chess, 1977) 또는 개인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Buss & Plomin, 1984)을 의미한다. 기질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Gauvain과 Fagot(1995)은 아동의 일차적 정서지각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기질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 Meehl(1975)도 선천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더 잘 느끼는 기질이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유전적 요인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 우울, 불안, 슬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자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경, 이양희, 2006). 하지만 긍정적 정서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Wood, Rhodes, & Whelan, 1989)가 있는 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행복감이나 만족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Diener, Suh, Lucas, & Smith, 1999; Haring, Stock, & Okun, 1984)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정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일관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과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서는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Lazarus & Lazarus, 1994).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지지는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

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적인 자원으로 한 개인이 주변의 다른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 정서 수준이 높다(Cohen & Hoberman, 1983). 반면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사람은 불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Turner, 1981). 선행 연구(Quamma & Greenberg, 1994; Sandler, 1980)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심리적 좌절과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사회적 지지는 시설이라는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좌절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는 변인이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발달시기에 따라 개인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지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교사, 친구 등이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된 지지원으로 나타났다(한미현, 1996; Hunter & Youniss, 1982).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시설에서 양육을 받는 시설보호 아동에게 시설은 일반 아동의 가정과 같은 공간이다(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이지성, 2008; 박영준, 1997). 시설보호 아동은 보육사를 심리적 부모(psychological parenting)로 여기고 시설내 다른 아동과 형제관계를 이루게 된다(정선옥, 2006a, 2006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육사와 시설내 다른 아동을 시설가족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시설보호 아동이 대부분의 일상 시간을 교류하는 친구, 시설가족, 학교교사를 주된 지지원으로 보고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시설보호 아동이 얻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 정서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통해 측정될 경우 보편적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원으로 도출된다(Watson & Tellegen, 1985).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회에 적응적이며 창조적, 지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개체로 발달한다(Fredrickson, 2001). 반면 부정적 정서가 강한 사람은 긍정적 정서가 강한 사람에 비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 불안 및 내면적, 외면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안정하, 조옥귀, 2002). 즉 정서는 개인의 안녕에도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Diener, 1984). 이들 긍정적,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되므로(Watson & Tellegen, 1985) 개인의 안녕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정서는 고양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국내 연구(김민희, 민경환,

2004; 김진주, 구자영, 허성용, 서은국, 2007; 한덕용, 표승연, 2002)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김용희, 2009; 장은혜, 임혜진, 이영창, 정순철, 손진훈, 2005)도 소수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취약하고 결함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에 관해 수행되었다(김경진, 2003; 노혜련, 장정순, 1998; 유미숙, 1980). 이들 연구는 소외된 시설보호 아동의 상태를 외부로 알려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에 일조하였지만, 긍정적 정서를 살펴보다 적응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설보호의 목적이 가정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사회적으로 적응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보건복지부, 2003) 시설보호 아동 개인의 사고와 행동,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 정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부정적 정서변인에 국한하지 않고,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통합적으로 포함해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고려하여 기질과 성별, 사회적 지지가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연구변인들의 경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전적 요인(성별, 기질)과 환경적 요인(사회적 지지)을 구분하여 이들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과 발달을 이루는 데 후천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성별, 기질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건강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시설보호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지, 긍정적·부정적 정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복지 양육시설 20 곳에서 시설 생활기간이 1년 이상, 시설입소 당시의 연령이 만4세 이상이었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만3세 전후의 양육환경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Vorria, Rutter, Pickles, Wolkind, & Hobsbaum, 1998) 시설입소와 같은 사건은 정서에 영향을 주다가 1년 이내 그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Suh, Diener, & Fujita, 1996).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 104명(53%), 여아 94명(47%)이었다. 이들 중 4학년 61명(31%), 5학년 63명(32%), 6학년 74명(37%)이었다.

2. 연구도구

1) 기질 척도

시설보호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세영(1996)이 번안하고 수정한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아동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재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기질 척도는 본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와 달리 적재된 18번 문항을 삭제하고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쉽게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정서성 5문항,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적 특성을 뜻하는 활동성 5문항,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이와 같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사회성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정서성 .72, 활동성 .73, 사회성 .77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척도

시설보호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가족지지'를 '시설가족지지'로, '교사지지'는 '학교교사지지'로 수정하였다. 이때 '시설가족'은 아동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과 아동을 돌봐주는 보육사를 의미한다. 아동이 원가족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 사항을 질문지에 명시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지지 8문항, 시설가족지지 8문항, 학교교사지지 8문항,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보호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는 친구지지 .87, 시설가족지지 .90, 학교교사지지 .87, 전체 .89로 나타났다.

3) 긍정적·부정적 정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은경과 이양희(2006)의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시설보호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정서 24문항, 부정적 정서 33문항,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 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높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정서는 .93, 부정적 정서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아동복지 양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소재 33개의 양육시설 중 20곳에서 시설 생활기간이 1년 이상, 시설입소 당시의 연령이 만4세 이상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10년 3월에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아동복지 양육시설을 방문해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와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17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일주일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중 211부(97%)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Cronbach α , 요인분석, t -검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성별은 가변수화 해 투입하였다(남아 0, 여아 1).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투입된 변인 간의 가장 높은 상관이 .54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인수(VIF) 값이 1에 가까웠으며 Dubin-Watson 계수는 1.75~1.78로 2에 가까워 잔차항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질과 사회적 지지 및 긍정적·부정적 정서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각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질의 정서성에서 여아집단($M = 3.12, SD = .69$)이 남아집단($M = 2.87, SD = .6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기질의 사회성과 활동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부정적 정서에 격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수준이나 타인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교적 성향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시설보호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결과, 학교교사의 지지는 여아집단($M = 3.87, SD = .69$)이 남아집단($M = 3.65, SD = .76$)보다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친구지지와 시설가족지지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학교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나 시설가족에게 받는 지지지각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남아집단($M = 2.93, SD = .51$)이 여아집단($M = 2.70, SD = .61$)보다 높았으며 부정적 정서는 여아집단($M = 2.21, SD = .59$)이 남아집단($M = 1.95, SD = .53$)보다 높았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우울, 슬픔, 부끄러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 기쁨, 자랑스러움 등의 긍정적 감정은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이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에 따른 t -검증

변인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t
		남	여	전체	
기질	정서성	2.87 (.67)	3.12 (.69)	2.99 (.69)	-2.59*
	활동성	3.37 (.67)	3.34 (.85)	3.35 (.76)	.27
	사회성	3.48 (.56)	3.37 (.65)	3.43 (.60)	1.27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3.47 (.69)	3.52 (.79)	3.49 (.74)	-.44
	시설가족지지	3.51 (.86)	3.36 (.84)	3.44 (.85)	1.22
	학교교사지지	3.65 (.76)	3.87 (.69)	3.76 (.73)	-2.09*
정서	긍정적 정서	2.93 (.51)	2.70 (.61)	2.82 (.57)	2.81**
	부정적 정서	1.95 (.53)	2.21 (.59)	2.07 (.57)	-3.20**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성별	-.23	-.20**	-.15	-.13*	-.17	-.14**
기질	정서성			-.09	-.11	-.05	-.06
	활동성			.02	.02	-.01	-.02
	사회성			.48	.50***	.33	.35***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05	.07
	시설가족지지					.26	.39***
	학교교사지지					.11	.14*
	R ²	.04		.32		.51	
	ΔR ²	.04**		.28***		.19***	
	F	7.92**		22.96***		28.48***	

* $p < .05$, ** $p < .01$, *** $p < .001$.

2.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기질의 하위요인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만 투입된 모형 1의 설명력은 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 = 7.92, p < .01$). 모형 2의 설명력은 32%로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과 기질이 긍정적 정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2.96, p < .001$). 모형 3의 경우 설명력이 5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밝혀졌다($F = 28.48, p < .001$).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28%로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지 요인이 추가된 모형 3의 설명력은 모형 2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또한 모형 3에서 시설가족지지($\beta = .39, p < .001$), 기질 중 사회성($\beta = .35, p < .001$), 학교교사지지($\beta = .14, p < .05$), 성별($\beta = -.14, p < .01$)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 아동이 시설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고 낯선 이와도 쉽게 친밀해지는 성향을 가질수록,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여아에 비해 남아가 긍정적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고 낯선 이와도 쉽게 친밀해지는 기질적 특성이 긍정적 정서를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성별과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시설가족이나 학교교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아동의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만 투입된 모형 1의 설명력은 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 = 10.24, p < .01$). 모형 2의 설명력은 37%로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과 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8.04, p < .001$). 모형 3의 경우 설명력이 4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 = 19.04, p < .001$).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해 32% 증가하였다. 모형 3의 설명력은 모형 2에 비해 4% 증가하였다. 또한 모형 3에서는 기질 중 정서성($\beta = .49, p < .001$), 시설가족지지($\beta = -.21, p < .01$), 기질 중 사회성($\beta = -.14, p < .05$)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 아동이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부정적 정서에 격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시설가족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사람과 함께 하고 낯선 이와도 쉽게 친해지는 사교적 성향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 개인이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 경향성이나 낮은 사교적 성향의 기질적 특성이 부정적 정서를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통제 한 후에도 시설가족의 지지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기질 및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학교교사 지지 및 긍정적·부정적 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표 3〉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 기질,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성별	.25	.22**	.13	.11	.12	.11
기질	정서성		.42	.51***	.41	.49***
	활동성		-.02	-.03	-.02	-.02
	사회성		-.17	-.18**	-.13	-.14*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03	-.04
	시설가족지지				-.14	-.21**
	학교교사지지				-.03	-.04
R^2	.05		.37		.41	
ΔR^2	.05**		.32***		.04**	
F	10.24**		28.04***		19.04***	

* $p < .05$, ** $p < .01$, *** $p < .001$.

났다. 기질 중 정서성은 평균적으로 여아집단이 남아집단보다 높고 활동성, 사회성에는 성차가 없다. 이는 생애 첫해부터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예민하고 낯선 상황에 공포를 더 많이 느끼며 소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Feingold의 연구(1994)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활동성에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신생아기부터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신진대사율이 높아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 Blennow와 McNeil의 연구(1980)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시설의 집단생활을 통해 남녀구분 없이 행동동일을 배우고(정선옥, 2009)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명상에 잠길 기회가 거의 없이 집단 속에서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박용택, 1994) 시설 특유의 생활패턴에서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 중 학교교사지지는 평균적으로 여아집단이 남아집단보다 높게 지각한 반면 친구지지, 시설가족지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명숙의 연구(1995)와 일치한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는 평균적으로 남아집단이 여아집단에 비해 높았다. 반면 부정적 정서는 여아집단이 남아집단에 비해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을 연구한 한지현과 이진숙의 연구(2007)에서도 여아집단이 남아집단에 비해 우울을 높게 보고하고 우울성향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데 미숙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아들이 부정적 정서에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특정 사회적 지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긍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설가족지지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질의 사회성, 학교교사지지와 성별이었다. 사회적 지지가 시설보호 아

동의 긍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변량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1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에는 기질의 정서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가족지지, 기질의 사회성 순이었다. 이때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변량은 4%였다.

종합해보면 학교교사지지와 성별은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정서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질의 정서성은 부정적 정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질의 사회성과 시설가족지지는 긍정적·부정적 정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적으로 시설가족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은 아동의 경우 긍정적 정서를 높게 보고하고 부정적 정서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아동에게 시설가족지지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피력된 바 있다.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에 따르면 공격성을 낮추는 데 보육사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본 연구(김진희, 2003)에서도 교사, 보육사, 친구지지 중 보육사의 지지만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시설가족이 시설보호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보호 아동은 친구나 학교교사의 지지에 비해 시설가족지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가정의 가족역할을 하는 보육사 및 시설 내 다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 간에 애착형성이 부족하며(유안진 외, 2002) 사랑, 관심, 이해, 도움, 신뢰, 배려 등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시설보호 아동이 시설내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연구를 위

해 제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아동양육시설에서만 표집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국내 전체의 시설보호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유전적 요인인 기질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에는 아동의 신체적 변인, 내적 특징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있어서 시설가족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큰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와 시설보호 아동 간에 상호작용 또는 시설보호아동 간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기질,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가 시설보호 아동의 심리 및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후 시설보호 아동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강경미(2008).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의 실태와 기독교상담의 역할. **성경과 신학**, 46, 219-234.

김경진(2003). 사회복지 시설아동의 정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희, 민경환(2004).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

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이지성(2008). 시설보호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1), 43-61.

김홍희(2009).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07-124.

김진주, 구자영, 허성용, 서은국(2007). 정서 경험의 긍정성 비율과 변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89-100.

김진희(2003). 원가족 접촉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혜련, 장정순(1998). 육아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4), 45-67.

박영준(1997). 육아시설아동의 생활환경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3(2), 133-155.

박용택(1994). 시설아동의 양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아동복지학**, 2, 205-225.

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03-89.

안정하, 조옥귀(2002). 아동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 아동의 공격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인문논총**, 15, 55-74.

유미숙(1980). 보호시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MMPI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이은경(2006).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 개발 연구: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 이양희(2006).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93-115.

장은혜, 임혜진, 이영창, 정순철, 손진훈(2005).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따른 아동의 안면근육반응 차이. **한국감성과학회지: 감성과학**, 8(2), 161-167.

정선옥(2006a). 시설보호 아동의 보육사 관계 경험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115-144.

정선옥(2006b). 시설보호 아동의 시설 생활 경험연구 -비혈연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0(2), 151-183.

정선옥(2009). 시설보호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설 생활의 의미. **한국청소년연구**, 20(3), 193-219.

한덕웅, 표승연(2002). 정서경험에 따른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환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03-427.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현, 이진숙(2007).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계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우울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155-168.
- Blennow, I. P., & McNeil, T. F.(1980). Questionnaire for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one-and two year-old children.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1, 37-46.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99-125.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ubow, E. F., & U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Feingold, A.(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29-456.
- Fredrickson, B. L.(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Gauvain, M., & Fagot, B. L.(1995). Child temperament as a mediator of mother-toddler problem solving. *Social Development*, 4, 257-276.
- Haring, M., Stock, W. A., & Okun, M. A.(1984). A research synthesis of gender and social class as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Human Relations*, 37, 645-657.
- Hunter, F., & Youniss, J.(1982). Changes in function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Lazarus, R. 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Lazarus, B. N.(1994). *Passion &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eehl, P. E.(1975). Hedonic capacity: Some conjecture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39, 295-307.
- Quamma, J., & Greenberg, M.(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Sandler, I. N.(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285-302.
- Suh, E., Diener, E., & Fujita, F.(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91-1102.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urner, R. J.(1981). Social support as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57-367.
- Vorria, P., Rutter, M., Pickles, A., Wolkind, S., & Hobsbaum, A.(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 parent families: II. Possible mediating mechanism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225-236.
- Watson, D., & Tellegen, A.(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ood, W., Rhodes, N., & Whelan, M.(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49, 1169-1183.

접 수 일 : 2010년 11월 26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2월 16일